



에스아이테크, 장학금 100만원 기탁

【에스아이테크는 지난 28일 학비가 필요한 저소득 자녀를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마련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 포기할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에게 지원한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미래의 간호사가 꿈을 이룰 수 있게 학업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게 됐다. 한수용 대표는 "적은 금액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며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해 익산시의 인재로 성장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지원에 감사를 전한다"며 "가정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익산시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에스아이테크는 2018년 설립한 익산 소재 태양광(E) 비상경보장치, 미세먼지 신호등, 경관 조명 장치 설치 기업으로 착한기업 나눔 실천, 연탄나눔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및 나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내 고향 무주가 자랑스럽다’

무주반딧불축제 맞아 무주 찾은 재경인사들 한 목소리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를 맞아 무주를 찾은 무주 향우 인사들은 자신들의 고향 무주가 자랑스럽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27일 무주 향우회의 날 축하 자리에서다.

지난 27일 무주군애향운동본부 주최로 무주 수련원에서 무주 향우회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를 맞아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출향인들이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북돋운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 김용봉 애향운동본부장, 진용훈 제전위원장, 신덕재 재경향우회장을 비롯한 재경향우회, 재부신향우회, 재대전향우회, 제전주향우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공을 이뤘다.

황영사에서 황인홍 군수는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축제가 개최되지 못했는데 그만큼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프로그램도 아이·관람형으로 준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니 고향 무주를 성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향우회원들의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드리며, 늘 자랑스러운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언제든 돌아와 쉬 수 있는 편안하고 든든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무주



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덕재 재경향우회 회장은 "제26회 반딧불축제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고향 무주의 지방자치경쟁력을 인정받은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 반딧불 농·특산물 이 전국 어디서든 알아주는 친환경 건강 농·특산물로 인정받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을 모두 품은 태항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고향 앞에 있는 만큼, 우리의 고향 무주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에서 고향 무주를 방문한 향우회원들은 1박 2일간 반딧불이 서식지를 비롯한 무주군 일원 태권도원과 무주덕유산리조트, 머루와인동굴, 반디랜드 등 관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무주의 향수를 느끼고 돌아갔다. /무주=전문선기자



제1회 부안컵 격포바다선상낚시대회 성료

지난 28일 격포항과 부안외빈다에서 진행된 제1회 부안컵 격포바다 선상낚시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번 대회는 부안군이 주최하고 (주)한국낚시채널에서 주관하였으며, 총상금 2,500만원을 놓고 300여명의 낚시인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기를 펼쳤다. 오전 4시에 출항해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8시간 동안 민어 최대어를 놓고 펼쳐진 레이스 속에 우승은 민어 117cm를 잡은 신호재(경기 군포)씨가 차지해 500만원의 상금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선다 선장상은 서헌터호가 차지해 1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부안군에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한 지역특화스포츠관광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국비 13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추진된 사업 중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관광업계와 지역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은 풍부한 해양자원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해양레저를 즐기기에 부안을 찾은 선수들과 관광객들이 풍부한 먹거리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거라며, 해양레저 관광지 부안군을 기억하고 매년 다시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김제시자원봉사센터, 가족봉사 정기활동 실시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는 지난 27일 행복드림 가족봉사단 9가족 28명과 함께 8월 정기활동을 실시하였다. 행복드림 가족봉사단(회장 김성국)은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매월 1회씩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월 활동에는 곧 다가오는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봉사자 각 자택에서 행복기쁨 나눔행사가 진행되었다. 가족들이 오순도순 모여 서로 다른 모양과 크기로 예쁘게 송편을 빚으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만들어진 송편은 가족봉사단의 뜻에 따라 관내 복지노인 및 1인가구 60세대(시영아파트)에 전달하였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자녀들의 긍정적 가치관과 자연스러운 봉사문화 조성을 위해 부모와 함께하는 정기적인 가족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정성주 김제시장은 "가족단위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켜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 김제시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영태 고창군청 공무원, 기술사 취득 2관왕 탄생

고창군청 공무원이 '토목시공기술사' 취득에 이어 올해 '건설안전기술사'까지 취득하며 '기술사' 2관왕에 올라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올해 8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제127회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건설안전기술사에 합격한 고창군청 안전총괄과 김영태 복구지원팀장(48세, 시흥급)이다. 김영태 팀장은 지난 2014년 토목시공기술사를 취득, 박사급에 버금가는 기술사 반열에 올랐다. 그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건설안전기술사' 취득을 위해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평일 새벽과 주말에 틈틈이 공부함으로써 필기



논술시험과 면접 구술시험을 차례로 합격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보통 국가기술자격시험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로 분류되며, 건설안전기술사는 건설현장의 사고와 재해예방을 위해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건설안전 분야의 최고 권위의 자격증이다. 더욱이 현직 공무원이 기술 분야의 고시로 불리는 기술사를 2개나 취득한 것은 매우 드물다. 수험기간 동안 모친 수순임씨의 성원과 아내 이경희씨의 내조가 합격의 원동력이라고 말하는 김영태 팀장은 '토목시공기술사와 건설안전기술사를 준비하며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접목해 고창군 발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문주 남원시 통합사례관리사, 보건복지인재원장상 수상

남원시는 29일 주민복지와 희망복지지원단 김문주 통합사례관리사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주최한 '2022년 사례관리실천 우수사례 공모전'에 선정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행정기관과 사회복지를 위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의 가치와 실천원칙, 핵심 수행과업을 실천한 사례를 모집해 총 10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남원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문주 관리사는 남원의 폭력으로 뇌진전을 앓게 된 엄마



와 정신질환 의증의 은둔생활 중인 두 자매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안전·건강·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인 욕구 해결을 위해 노력,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근로활동 참여로 자립을 이룬 사례를 기술해 그 공을 인정받았다. 지난 2009년부터 13년간인 배태랑 김문주 관리사는 수상 소감에서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 앞으로도 클라이언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4명의 통합사례관리사와 읍면동 복지·간호직 인력이 통합돌봄·사례관리를 통해 시민이 함께 돌보며 살아가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교육문화회관, 복콘서트 개최

익산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형태)은 오는 10월 6일 홍보를 작가를 초청해 복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행사는 보통 사람들의 인식적, 휴먼적 서점으로 라는 주제로 이날 18시부터 20시 20분까지 익산교육문화회관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재즈밴드인 리페이지(RE:PAGE)의 공연으로 복콘서트의 막이 열리고 독립서점 '찰' 익은 언어들'의 이지선 책방지가 대담자로 나서 홍보를 작가와의 삶과 작품 이야기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신청은 9월 5일까지 회관 누리집(독서문화진흥-수강신청)에서 할 수 있다. 김형태 관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이 지쳐있는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우리 회관에서 기뻐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복콘서트를 통해 위로가 되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성기자



김제시 칠봉회, 취약계층 외벽 페인트칠 봉사

김제시 칠봉회 칠봉회(회장 고성훈)는 지난 27일 봉남면 신주마을 취약계층 세대 외벽 페인트칠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칠봉회(페인트칠하는 봉사회)는 2020년 김제스토리봉사대로 출발하여 월1회 관내 소외계층을 발굴 봉사를 펼쳐온 단체로, 2022년부터 월2회 취약계층 페인트칠 봉사를 전개하고 있다. 현재 회원 11명이 활동하고 있다. 칠봉회 고성훈 회장은 "나눔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작은 정성이라도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작은 위안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소통하고 상생하며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혜경봉남면장은 "더운 날씨에도 사랑의 손길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준 칠봉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남농영농조합법인, 사랑의 백미 전달

남원시는 29일 남농영농조합법인에서 시정을 찾아 4백만 원 상당의 '사랑의 백미' 250포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추석을 앞두고 관내 저소득 가구에 백미를 전달하여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하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으며, 전달식에는 남원시장, 주민복지과장, 남농영농조합법인 김보영 센터장, 진병영 춘향골공동체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전달받은 백미는 관내 저소득 세대,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소외계층 25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요즘처럼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이웃을 생각해주는 마음에 감사드리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남로타리클럽, 부부합동 정기모임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남 로타리클럽(회장 김형권)에서는 부부합동 정기모임에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싸움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이윤애 센터장을 강사로 문화강좌를 진행했다. 강좌에서 싸움의 기술을 10가지로 분류하여 30여 년간 여성 상담을 진행하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현실감 있는 강의를 진행하여 회원 및 배우자의 많은 찬사를 받았다. 김형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지되었던 부부 합동 정기모임을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화강좌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고, 또한 2부 행사로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의 고창군 유치에 관한 캠페인을 진행하여 고창군으로의 유치를 위한 당위성과 전북도민들의 인식 확산을 위한 민간 주도의 첫 발을 내디뎠으며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게임학과, 전북코리안랩 콘텐츠 창업캠프 대상

한국게임학과고등학교 컴퓨터게임개발과 학생들이 2022 전라북도코리안랩 콘텐츠 창작 창업캠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대회는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붐 조성을 위해 창업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벤처기업의 창업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전라북도 콘텐츠산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26~28일 2박3일 간 영상, 디자인, 크리에이터, ICT 등 콘텐츠 분야 창업아이디어 사업계획서를 완성하는 대회로서, 전북도민, 재학생 콘텐츠 창업준비생 등 총 2개 팀이 참가했다. 이에 한국게임학과 컴퓨터게임개발과 3학년 황재진·박수한·전서진 학생으로 구성된 어텐트팀은 '능력, 시간조정, 반전 수중이라는 4가지 요소를 이용한 퍼즐을 통해 전쟁으로 인해 멸망한 세계를 탐험하는 모바일게임'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어텐트팀은 "현재 프로토타입을 제작 완료했고, 12월 출시를 목표로 게임을 개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기자

순창군, 한돈협회 추석맞이 흑돼지고기 나눔행사

한돈협회 순창군지부(지부장 박영선 이하 순창한돈협회)가 29일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 등에 전해 달라며 시가 450만원 상당의 흑돼지고기 22상자를 기탁했다. 순창한돈협회는 지난 설 명절에도 180만원 상당의 흑돼지고기 18박스를 기탁한 바 있고 해마다 2회 이상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돼지고기를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훈훈한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코로나19 및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돼지고기를 기탁한 순창한돈협회에 감사드리며, 맡겨준 고기는 복지시설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영환 기자